

1110(목) 사도행전 16-19장 온 세상의 왕, 예수

바울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왕의 통치 아래 온 세상이 누리게 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분명했지만 매우 위험한 발언들이었습니다.
(13:47, 사49:6, 시2, 72, 89 참고/ 요15:18-19)

로마제국은 안정적인 치리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종교 행사는 모든 이가 참석해야 할 사회적 의무였지만,
종교에 민감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공식적인 열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위낙 배타적이라 타민족과 교류가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공동체는 특권도 없이 공식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유대교와 다른 개별공동체였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선교를 위해 이방인과의 밀접하게 접촉했습니다.
제국은 특권을 요청하는 이들이 점차 늘 경우를 심히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에게 황제의 칭호를 붙였습니다(주님, 퀴리오스).
(16:21-22, 17:4, 7, 19:10, 21, 23)

유대교는 기독교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소란에 휩쓸려 있던 특권마저 빼앗길까 염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으며(17:5, 13, 18:6, 12),
결국 그들의 고소로 로마 법정에 서게 됩니다(18:12-17).

주님은 끌려간 법정에서 선교의 정당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 문제를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고 판결합니다(18:15).
바울을 <유대공동체>의 일부로 인정한 제국의 공식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열외특권을 누리며 선교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18:9-10)”

나는 <온 세상의 주님>을 경험합니까?

- ❶ 모든 상황과 사람이 주님의 주권아래 있음을 깨닫습니까?
- ❷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 나의 구주로 선포할 때 겪게 되는 갈등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시작기도 + 통독 사도행전 16-19장